

◇선거를 통한 변혁 가능성 진단을 위한 기획 시리즈 <1> - 선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불가피한 지배방식 변화 대응책

92, 93년 4차례의 선거에 있어 선거를 통한 변혁의 방향과 가능성들은 아직 우리에게 있어 미지수로 남아 있는 듯하다. 이에 본 시리즈에서는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기대되는 선거의 요구와 목적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I. 보통선거제의 정치사적 의미

선거 일반, 좀 더 구체적으로 보통선거제에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직접적인 참여와 결정의 의미는, 흔히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근대정치사에서 참여와 결정은 근대 이후 정치이론의 가장 쟁점의 하나인 '권력 또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의무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특히 로크의 정치이론에서 참여와 결정 또는 -로크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동의'의 필요성은, 근대 초기의 절대권력에 대한 -신봉부르주아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유산계급 일반의 견제와 저항의 논거인 한에서, 혁명적인 정치이론이었지만 그(동의)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 또는 권력에 대한 복종 또는 의무의 근거이기도 하다.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복종 또는 의무론의 논거로서 참여와 결정은, 다시 루소에 의해, '평등한' 소생인자로서의 일반의지의 형성과정이라는 급진적 정치이론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역사는 그의 정치적 구상과 달리 더 심화되는 불평등사회 안에서 보통선거제라는 보편적 참여와 결정의 형식이 실현되었다. 이 때, 적어도 루소에, 보통선거제는 일반의지의 형성과정이나 불평등한 사회를 정당화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할 것은 분명하다.

부르주아계급이 절대왕정과 막 씨우기 시작했던 로크의 시기에 동의의 원리가 혁명적이었던 만큼이나 절대왕정에 대한 부르주아계급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결전의 시기에 보통선거제 또한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보통선거제가 혁명적이었던 것은 단지 절대왕정이나 봉건귀족계급에 대해서만 그러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산계급 일반에 대한 무산계급의 도전의 수단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다수자지배의 민주주의 하에서 일반의지를 의 미하는 보통선거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노동자)계급지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었으 -이 생각은 20세기 초 독일사회민주당이 득표를 통한 평화적 이행가능성을 전망했던 것 만큼이나, 레닌이나 룩셈부르크의 입장에서

볼 때, '소아적'이다. 프랑스의 1789년 대혁명과 1848년 2월혁명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는 듯했다. 여기에서 보통선거제의 실현을 주장했던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정치인과 정치이론가들은 주지했지만 절대왕정과 봉건귀족계급에 대한 최후의 결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완전한 보통선거제를 주장하는 노동자계급과 점진적이나마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히 보통선거제는 일정하게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의 성과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절대왕정과 귀족계급에 대한 부르주아계급의 결정적인 승리의 성과물로서 획득되어지는 순간, 또는 부르주아계급이 더 이상 중간계급이 아닌 지배계급이 되는 순간 그들에게 보통선거제는 노동자계급을 기성체제 안에 묶어두는 제도적 장치로 등장했다. 신분제의 해체를 통해 그 갈등과 대립이 전면화하는 자본제적 계급사회에서 정치권력 또는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복종과 의무라는 근대정치사의 최대의 과제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보통선거제는,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정치인과 정치이론가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필수불가결의 절차가 된 것이다. 아테네식의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와 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흔히 생각되는 대규모의 정치사회에서 주기적인 선거는 분명히 주권자들에게 대한 그 대표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대표자들에 대해 주권자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찰시킬 수 있는 최선의,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좀 더 급진적인 반론의 출발점으로서 대규모의 정치사회를 다시 소규모의 루소적 정치사회 또는 정치적 코뮌으로 재구성하려는 구상에 관한 논의의 확장은 이 글에서 불가능하다. 더욱이 그것이 '제한'선거가 아닌 '보통'선거일 때 참여 그 자체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체제의 권위에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시킨다. 투표의 '거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불참은 그 가 빠진 상태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의사의 표시로 간주된다. 혁명적 상황이나 한에서 낮은 투표율이 체제의 정당성

의 결핍의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주주의체제는 부르주아적이라는 계급적 의미가 사상(像)된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선거 이외의 시기는 물론 심지어 투표할 때만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주주의체제는 부르주아적이라는 계급적 의미가 사상(像)된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선거 이외의 시기는 물론 심지어 투표할 때만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주주의체제는 부르주아적이라는 계급적 의미가 사상(像)된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선거 이외의 시기는 물론 심지어 투표할 때만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II. 맑스-레닌주의의 이중적 태도

보통선거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적인 태도는 일견 이중적인,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의회제와 함께 보통선거제는 적어도 그 형식, 절차상 가장 민주적이며, 그 때까지의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치형태이다. 더욱이 보통선거제에는 일정하게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의 성과가 담겨져 있다. 그것이 관료제나 상비군 등과 같은 다른 국가기구들과 선거 및 의회제라는 '특수한' 국가기구의 차별성이자 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의 독특한 전략, 전술이 레닌에 의

해 채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전략, 전술의 기본적인 관점은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의 주요한 한 장(場)으로서 (보통) 선거 및 의회제는 결코 방기되어서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 및 의회제가 노동자계급운동의 유일한 장도 아니며 선거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나 평화

게 만드는 독특한 국가기구의 하나에 불과한 의회정권을 통한 혁명은 그들에게 환상이었다. 맑스, 레닌의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 및 의회제의 무조건적 거부 또는 무정부주의적 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선거 및 의회제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지되는 한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의 심화와, 계급적 대립 계급투쟁의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지배의 속성이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 선거 및 의회제는 다수의 대중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가진

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 및 의회제는, 관료제나 상비군과 같은 국가기구처럼 계급 '배제적'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계급) '내포적' 방식으로 지배하는 수단인 것이다. 지배를 위한 국가기구의 하나로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선거 및 의회제는, 프롤레타리아운동 여러 지형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전략, 전술이 채택되어야 하는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지형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프롤레타리아트계급의 정치투쟁과 직접적인 정치적 경험의 장이 되게 드러나는 장이기도 하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레닌은, 선거 및 의회에 관한 우익사회주의(개량)적 태도와 좌익소아병(무정부주의)적 태도 모두를 견제하면서, 러시아혁명과정에서의 참여와 보이콧전술의 경험을 제시한다. 선거 및 의회제에 관한 일상적인 태도는 레닌에게 참

여전술이다. 보이콧전술은 첫째 혁명과 반혁명이 결합하는 내전에 사용하는 시기, 즉 혁명정세의 고양기라는 때라서 둘째, 선거 및 의회소집이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중불기가 마련되는 한에서는 두가지 조건을 갖춘 '적극적 보이콧'의 의미를 지닐 때만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및 의회에 관한 레닌의 이러한 전술은 한편으로 선거 및 의회에 관한 사회주의운동의 일반적 관점으로 제시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혁명의 특수한 경험이라는 매우 한정된 근거를 지니고 강조되기도 한다.

III. 현대사회의 선거와 의회제

이제 선거 및 의회에 관한 러시아혁명의 경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원칙들을 20세기 초의 서구 및 동구의 사회주의운동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그 일반화의 가능한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려되어

문제를 관해서는 평화적 이행, 점진적 개혁 또는 개량, 고전적 혁명노선의 견지, 그리고 제3세계에서의 혁명의 가능성과 그 형태 등에 관한 서로 다른 정치적 태도 만큼이나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논쟁과 정에서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선거 및 의회제를 포함하는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들의 지배방식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맑스, 엥겔스의 고전적 문헌과 그에 관한 선언적 명제이자 레닌의 출발점이었다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들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가장 포괄적인 형태로 제기한 이론가로 우리는 그람세를 꼽을 수 있다. 시민사회의 지배방식에 관한 그람세의 이론은 이른바 헤게모니이론으로 대표되며 국가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동의와 설득에 의한 부르주아계급의 헤게모니적 지배에서 선거 및 의회제는 다른 어떤 폭력적, 이데올로기적 기구들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맑스, 레닌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효율성이 헤게모니적 지배를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참여와 보이콧전술의 어떠한 조합과 선택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계급은, 그들의 계급의식과 정치적 조직과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진정한' 대표를 좀처럼 지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답변은 알프레트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한 지배에서 찾아진다. 그람세와 알프레트의 많은 정치이론적 기여와 그것들을 둘러싼 20세기 후반의 긴 논쟁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의 산물이다. 사실 구체적인 지배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그 지배체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우연한 전복을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IV. 선거 및 의회제와 변혁의 문제

그람세와 알프레트의 그러한 이론적 기여는 사회주의혁명의 그러한 난관을 돌파하려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문제를 관해서는 평화적 이행, 점진적 개혁 또는 개량, 고전적 혁명노선의 견지, 그리고 제3세계에서의 혁명의 가능성과 그 형태 등에 관한 서로 다른 정치적 태도 만큼이나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논쟁과 정에서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선거 및 의회제를 포함하는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들의 지배방식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맑스, 엥겔스의 고전적 문헌과 그에 관한 선언적 명제이자 레닌의 출발점이었다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들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III. 현대사회의 선거와 의회제

이제 선거 및 의회에 관한 러시아혁명의 경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원칙들을 20세기 초의 서구 및 동구의 사회주의운동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그 일반화의 가능한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려되어

문제를 관해서는 평화적 이행, 점진적 개혁 또는 개량, 고전적 혁명노선의 견지, 그리고 제3세계에서의 혁명의 가능성과 그 형태 등에 관한 서로 다른 정치적 태도 만큼이나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논쟁과 정에서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선거 및 의회제를 포함하는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들의 지배방식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맑스, 엥겔스의 고전적 문헌과 그에 관한 선언적 명제이자 레닌의 출발점이었다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들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가장 포괄적인 형태로 제기한 이론가로 우리는 그람세를 꼽을 수 있다. 시민사회의 지배방식에 관한 그람세의 이론은 이른바 헤게모니이론으로 대표되며 국가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동의와 설득에 의한 부르주아계급의 헤게모니적 지배에서 선거 및 의회제는 다른 어떤 폭력적, 이데올로기적 기구들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맑스, 레닌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효율성이 헤게모니적 지배를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참여와 보이콧전술의 어떠한 조합과 선택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계급은, 그들의 계급의식과 정치적 조직과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진정한' 대표를 좀처럼 지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답변은 알프레트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한 지배에서 찾아진다. 그람세와 알프레트의 많은 정치이론적 기여와 그것들을 둘러싼 20세기 후반의 긴 논쟁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의 산물이다. 사실 구체적인 지배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그 지배체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우연한 전복을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IV. 선거 및 의회제와 변혁의 문제

그람세와 알프레트의 그러한 이론적 기여는 사회주의혁명의 그러한 난관을 돌파하려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 그람세 순서
1. 선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선진 자본국가의 선거
 3. 제3세계 국가의 선거
 4. 역대 한국 선거 사례와 그 의미 (해방이후-70년말)
 5. 역대 한국 선거 사례와 그 의미 (80년-92년 총선)
 6. 향후 92, 93년 선거에 대한 제언

문제를 관해서는 평화적 이행, 점진적 개혁 또는 개량, 고전적 혁명노선의 견지, 그리고 제3세계에서의 혁명의 가능성과 그 형태 등에 관한 서로 다른 정치적 태도 만큼이나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논쟁과 정에서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선거 및 의회제를 포함하는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들의 지배방식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맑스, 엥겔스의 고전적 문헌과 그에 관한 선언적 명제이자 레닌의 출발점이었다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들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가장 포괄적인 형태로 제기한 이론가로 우리는 그람세를 꼽을 수 있다. 시민사회의 지배방식에 관한 그람세의 이론은 이른바 헤게모니이론으로 대표되며 국가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동의와 설득에 의한 부르주아계급의 헤게모니적 지배에서 선거 및 의회제는 다른 어떤 폭력적, 이데올로기적 기구들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맑스, 레닌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효율성이 헤게모니적 지배를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참여와 보이콧전술의 어떠한 조합과 선택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계급은, 그들의 계급의식과 정치적 조직과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진정한' 대표를 좀처럼 지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답변은 알프레트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한 지배에서 찾아진다. 그람세와 알프레트의 많은 정치이론적 기여와 그것들을 둘러싼 20세기 후반의 긴 논쟁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의 산물이다. 사실 구체적인 지배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그 지배체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우연한 전복을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IV. 선거 및 의회제와 변혁의 문제

그람세와 알프레트의 그러한 이론적 기여는 사회주의혁명의 그러한 난관을 돌파하려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고전적 맑스-레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부정될 수 없다. 먼저 실천의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포함한 헤게모니적 지배가 지나치게 강조될 때 그러한 지배의 일상화 또는 공고화 속에서 변혁의 문제는 모험주의적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의 극단에서 변혁의 전망의 상실로 나타날 여지가 주어진다. 분명히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운동 및 정치세력들은 변혁의 포기 또는 발기와 대안의 부재 사이의 함정에 빠져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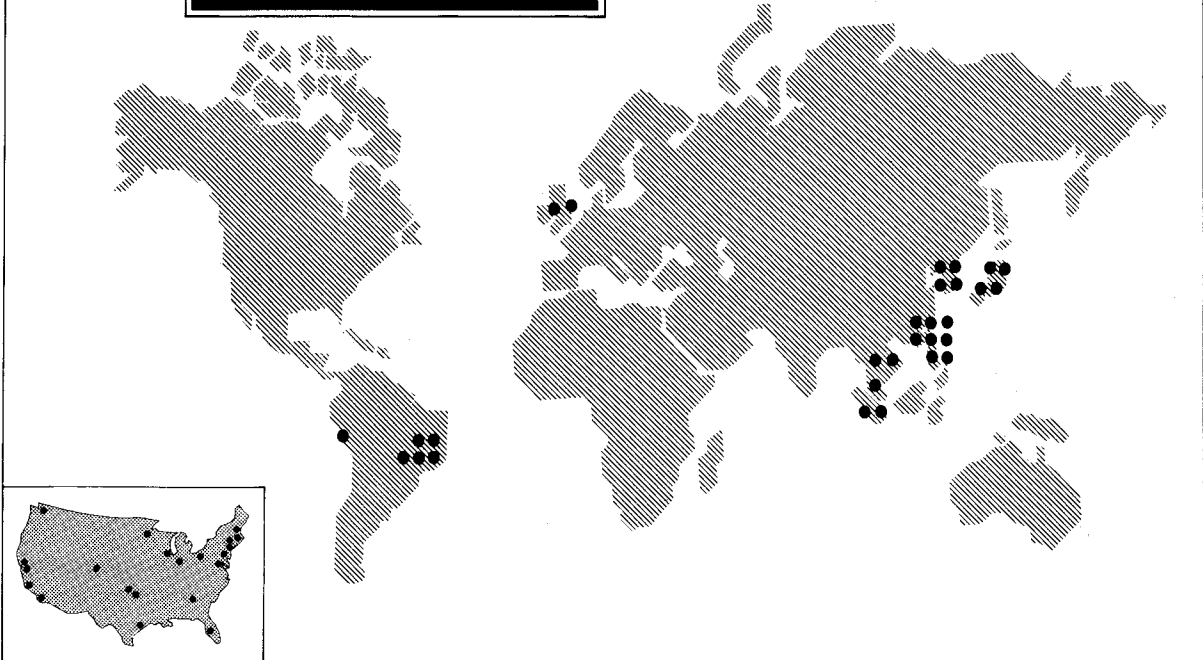
그러나 변혁의 문제가 이 양극단 사이의 임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했을 때 현대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적 작업의 초점은 헤게모니적 지배에 관한 좀 더 근원적인, 그리고 사회구성체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총체적인 분석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의 근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기구 존재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사회적 지배력, 다시 말해서 독점자본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물질적 이해의 완전한 충족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대자본주의체제의 안정적 지배는 합리적 조율이나 사회주의의 점진적 개량에 의해 힘입는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물질적 이해의 완전한 충족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나아가서 노동자, 농민계급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투합', 일상적인 자발적 소외와 냉소, 나아가서 동의와 설득의 '강제', 그리고 노동자계급과 신중간계급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 측면에서의) 분리통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의 본질이다.

물론 헤게모니적 지배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이해가 알프레트나 전후 유럽의 맑스주의자들이 느꼈던 것보다 변혁을 전담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일 때, 그리고 일상적으로 공고화된 지배체제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성급한 혁명적 정치투쟁이 아닌 그야말로 일상적인 정치투쟁이며 선거와 의회제 역시 바로 그러한 일상적 투쟁의 장이 아닌가? 이 때 선거 및 의회제는 여전히 부르주아적 자유 '민주주의'의 형식성을 폭로하는 레닌적 단계의 선전, 선동적 약술론의 지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체제내적 정책대안의 한계를 폭로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정책대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유 동
<연대박사과정·정치학>

ENGLISH

Your Passport
to the Future!



ELS LOCATIONS

ELS[®] SEOUL

ELS는
English Language Services의 약칭이며,
미국의 권위있는 영어학자들을 주축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교육 방법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영어교육, 연구기관입니다.

ELS Language Centers는
ELS가 직접하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영어교육 기관으로서, 미국내에 21개의 ELS Centers와
29개에 달하는 분교를 전세계에 갖고 있는 명실 상부한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입니다.

ELS는
본부를 LA에 두고 있으며, 30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교육 Program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ELS 강남 ELS 종로 ELS 서초
565-0509 278-0509 585-0509

● 21 USA LOCATIONS

• ATLANTA • BOSTON
• NEW YORK CITY(2) • NORMAN
• ST. PETERSBURG • SAN DIEGO

• CHICAGO
• OAKLAND
• SAN FRANCISCO

• CLEVELAND
• OKLAHOMA CITY
• SANTA MONICA

• DENVER
• PHILADELPHIA
• SEATTLE

• INDIANAPOLIS
• ST. PAUL / MINNEAPOLIS
• WASHINGTON, D.C.

● 29 INTERNATIONAL LOCATIONS

• SEOUL(3)
• KUALA LUMPUR
• SAO PAULO(5)

• PUSAN
• BEIJING(2)
• TOKYO

• OSAKA
• TAIPEI(6)
• KAOHSIUNG

• TAICHUNG
• JAKARTA
• LONDON(2)

• BANGKOK(2)
• LIMA
• BANDUNG